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도교육청, 초등교육 나눔의 날 운영... 배움과 참여 중심 수업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6일부터 1박 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교육전문직원 403명을 대상으로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및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초등교육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실천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 성장을 돕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등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영역별 교육 실천 사례 나눔을 통해 2018학년도 전라북도 초등교육을 성찰하고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협동적인 수업, 참여 중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함양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서울난우초 허승환 교사가 감사로 나서 '놀이로 행복한 수업 만들기'를 주제로 즐거운 수업 디자인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주는 (전주대정초)·소미영 (함평

초)의 '온작품 읽기의 실제', 임훈택 (전주용소초)의 '수학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체험활동', 심재국·이진호(봉동초)의 '함께 하는 즐거움, 놀며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이윤미(이리동산초)의 '교육과정 재구성, 왜 하지?', 이연희(이리백제초)의 '초등 거꾸로 수업 길라잡이', 정현우(임실초), 김소연(전주초)의 '교육과정 속 연극 만들기', 김유리(전주북일초)의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수업, 그리고 평가', 정민수(전주문학초)의 '수업의

강점 찾기', 김정선(미륵초)의 '최종 우물 PDC(학급공정훈육법) 교사 되기' 등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사례나눔 활동도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교육의 중요한 축인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실천 사례 나눔을 통해 2018학년도 전라북도 초등교육을 성찰하고 자발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새로운 수업문화 조성·전문성 함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학교와 대구 계명대학교 2018년 정기교류 행사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원광대에서 열렸다.

‘지역과 종교의 벽을 넘어’

원광대와 대구 계명대, 교류 20주년 행사 열어

‘원광대학교와 대구 계명대학교 2018년 정기교류’ 행사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원광대에서 열렸다.

영·호남 대학 간 친목 도모를 비롯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목적으로 1998년 5월 결연을 한 양교는 매년 총장을 비롯한 보좌자 및 부서장들이 상대 학교를 방문하고, 간담회 및 공동 학술세미나, 친선 야구경기 등을 개최하고 있다.

양교는 지난해 계명대에서 교류 20주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계명대 총장 일행이 원광대를 방문한 가운데 공동 학술세미나 및 포럼, 친선야구경기 등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15일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올

명대 김중순 한국문화정보학과 교수와 원광대 박광수 동양학대학원장이 각각 발표에 나서며, 사범대학에서는 2019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대비한 공동포럼이 ‘교원양성기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16일은 체육 교류 행사로 19회째 친선야구교류행사가 원광대 야구장에서 열렸다.

한편, 자매결연 이후 양교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비롯해 행정실무 정보교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와 원불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의 종립교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호남이라는 지역 특수성과 종교의 벽을 넘어 오랜 기간 우의를 이어오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산학협력 EXPO서 VIP 공식오찬 선보여 ‘호평’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 산학협력EXPO 개막식 행사 중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VIP 대상 오찬에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산학협력 반상’이 제공되어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유명 셰프의 요리가 아닌 전주대 학생들의 요리가 오찬에 올라 이번 산학협력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오찬인 만큼 든든하면서도 곧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안한 식단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전국 8도의 식재료와 그 특징을 한상에 담아냈다. 곤드레나물밥과 기장미역국, 너비아나구이, 삼색전, 함께 무나물 등이 제공되었으며, 오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입을 모아 맛과 담음새를 호평했다.

한식조리학과 정혜정 교수는 “산학협력의 취지에 맞게 전국 각 지역의 대표 식재료를 골고루 섞어 준비했고, 이번 자리가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에게 커다란 동기 부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EXPO에 참가했던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이번 EXPO를 통해 한식 문화의 중심이 전주라는 인식과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었다”라며, “전국의 식재료를 모두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른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산학협력 EXPO는 올 한해의 산학협력 사업을 총 결산하는 행사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며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2018 산학협력EXPO 개막식 행사 중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VIP 대상 오찬에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산학협력 반상’이 제공되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산학협력 EXPO에서 전주대 LINC+사업단 R&D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비빔밥초코파이를 출품한 전주제과가 ‘우수가죽기업’에 선정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4차 산업을 이끄는 힘’ 3D 프린팅 교육 성황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5일 공학관 3D프린팅실에서 ‘2018년 Creative 3D 상상플러스 심화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인 3D 프린터는 제조업과 제조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재학생과 청년창업가의 호응이 높았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3D 프린터 사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3D 프린터 이용 원리와 설계 교육 등을 통해서 사용법을 숙달하고, 3D 프린팅과 아두이노와 융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 숙련도를 향상시켰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전주대는 Creative 3D 프린터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숙련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알맞은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스타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IoT 창업교육, 3D 프린팅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을 학생 및 지역 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기계산업 이끄는 전북기계공고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서비스로봇 경진대회서 고등부 대상·은상 수상

전북기계공고 로봇자동화와 전공동아리(휴머노이드)팀이 최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8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부대행사인 ‘2018 제 1회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해 S/W 콘텐츠 개발(고등부·전용 임베디드 컴퓨터 보드 활용) 부문에서 대상, 은상을 수상했다. 무인 자율 주행차는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핵심기술인 첨단 인공지능 팀 러닝을 활용한 서비스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한 백운경 지도교사와 전북기계공고 3개 팀은 서울로봇고등학교 7개 팀과 경합을 벌여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등 로봇 활용 기술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학습한 인공지능 팀 러닝 자료와 기술은 인명구조 및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로봇기술에 응용하여 세계대회에 활용할 예정이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기계공고 휴머노이드 동아리는 실시간으로 웹 캠을 통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인식하여 팀 러닝 학습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상신호를 분석하여 실시간 대응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의 팀 러닝, 프로 그래밍 및 시스템 최적화 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여 서울로봇고등학교를 제치고 대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수고했어, 걱정말고(GO)’ 행사 개최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록)은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인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마한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2018년 대입수능능력시험을 마친 고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고했어, 걱정말고(GO)’ 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 관내 고3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사전 선착순접수를 받아 원광여자고등학교 외 2개의 학교 6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시를 노래하는 밴드이자, 문학과 랩 그리고 마음을 결집한 전문공연팀인 ‘트루베르’를 초청해 음악을 통해 시를 접할 수 있는 감성충만한 공연과 EBS의 세계테마기행 프로그램 여행 작가로 잘 알려진 유

성용 여행전문작가’를 초청해 앞으로 꿈길을 찾아 여행을 떠날 사회 세대기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고했어, 걱정말고(GO)’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회 세대기들을 위한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학업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공연 및 강연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